

人間과 建築環境

〈高層住居環境에 대한 社會心理學的 考察을 中心으로〉

工博 李 環 會

延世大學校 副教授

1. 序論

오늘날 人間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建築環境과의 相互作用에 関한 人間環境學에 関한 研究는 社會心理學의 接近方法에 依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人間과 그의 環境사이에는 일련의 函数的 関係가 成立된다는 仮説아래 兩者間に 体系的 連関性을 張り立て、 環境이 人間에 미치는 逆으로 人間이 環境에 미치는 相互影響을 규명하므로써 建築環境創造에 質的 變革을 시도하고 있다.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關係를 규명하는데는 우선 人間의 本質을 理解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生物體로써 人間의 本質은 生存이다. 그러나 人間을 생 각할 때 비단 生物學的 側面에서 보다는 精神, 心理, 社會, 生態 經濟的 側面에서 人間의 個體나 그가 屬해 있는 組織과 関連시켜 理解하는 것이 通例이다. 確實히 人間은 自身이나 그가 屬해 있는 組織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부단히 그의 環境을 創造하고 變造하며, 保存 또는 罷免한다. 이러한 論理的 事實에서 본다면 人間은 모두가 하나의 建築家라고 볼 수 있다. 이때 問題가 되는 것은 人間은 과연 그가 創造한 建築環境으로부터 어떠한 影響을 받느냐? 하는 問제이다.

世界 2 次大戰后 英國에서 戰亂으로 파괴된 国會議事堂 再建이 논의 되었을 때, 처칠경이 基調演說에서 「우리가 建物을 形成하지만 建物은 우리를 形成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人間이 建築環境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매우 함축성 있게 표현한 말로 해석된다. 20世紀初 英國의 都市計劃家들은 集合住宅團地의 基本單位 計劃(住宅規模나 街路網의 크기, 住宅의 方位 등)이 장차 이곳에 살게 될 入住者들의 社會的 行動패턴을 決定짓는 원인이 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소위 建築環境 決定論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都市社會科學者들에게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環境은 簡卽적으로 人間의 行動패턴을 결정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人間의 行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의견의 一致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선進諸國에서는 격증된 住宅수요문제의 해결책의 수단으로써 무수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층주거환경내의 人間生活은 많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다. 고층아파트 생활공간의 부적합, 이웃간의 独立性과 社會的 接触의 결여 고층주거에 대한 불안감, 원인모를 병적증

세, 아동발육의 장애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파트노이로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파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과 그가 창조한 환경사이에 야기되는 제반문제는 비단 建築家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심각한 문제들이다.

2. 人間・環境關係에서의 環境計劃

建築家가 新住居地域을 計劃하고 設計하는 것은 人間/環境關係(Man /Environment Relation)의 側面에서 보면 居住者들의 行為와 이들 行為間의 関係를 空間의 으로 配置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換言하면 建築家가 장래 그 住居地域 내에서 造成될 社會心理的 環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特히 人間의 各種行為는 各種 物理的因子(時間, 空間 거리)들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物理的環境設計家(Physical Designer)들은 人間行為의 패턴을 設計하는 결과가 된다.

一般的으로 建築雜誌에 게재되는 建物사진에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그러나 實際生活에서는 항상 建物의 内外部空間에 사람들이 行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建築은 人間의 各種行為(A-ctivities)를 収容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建物이든 人間의 行為를 유도하거나 함유하게 된다. 따라서 建物内外部를 거니는 사람들은 그 建物뿐 아니라 發生하고 있는 人間의 各種行為를 경험하게 된다. 換言하면 人間과 그를 둘러싼 環境사이에는 끊임없는相互作用(Interac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의 諸般要求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行為를 逐行하는 것에 依하여 達成되거나 五管을 通해 어떤 자극을 받는 것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要求達成의 基本的手段으로 行動(Actions)과 경험(Experiences)을 들 수 있다. 人間이 行動과 經驗을 하기 위한 接近은 人間의 存在를 確認하는 方法이 되며 이러한 接近方法은 物理的環境과 社會的環境 두 가지 要素로 構成되는 全體環境에 依하여 성취된다. 物理的環境이란 個人에게 영향을 미치는 人間이 아닌 모든 것으로, 社會的環境은 人間關係로부터 人間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定義될 수 있다. 以上關係는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다.

	物理的環境	社会的環境
경험을 위한 接近	①物理的 경험 ②物理的行動	③社会的 경험 ④社会的 행동
行動을 위한 接近		

- ① 物理的經驗이란 自然과 物理的構造物을 經驗하는 것.
- ② 物理的行動이란 음주, 식사, 호흡, 취침등.
- ③ 社会的經驗이란 他人과의 接触, 社会로부터 情報入手等.
- ④ 社会的行動이란 他人과의 對話와 協力等을 말한다.

歷史的으로 볼때 物理的環境計劃의 目的是 快適한 環境創造라 할 수 있다. 中世都市内에서 都市環境構造는一般的으로 잘 조작되고 上記 네가지 人間/環境關係는 잘 이루어 질 수 있었다. 例를 들면 中世都市에서 廣場이나 步道는 정보입수(社會的 經驗)의 중요한 장소였고 社会的 環境으로 연결되는 장소이었다. 오늘날 새로운 通信手段(TV, 라디오, 신문)을 通하여 社会的 經驗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것은一方의 接触이라는 間接的 手段에 불과하다. 이러한 間接的 接触方法(社會的 經驗)은 그 強度나 内容의 풍부함에 있어 伝統적으로 이루어졌던 直接的 通信手段(對話)과는 대체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人間은 겸차적으로 고립화되어가며 극단의 個人主義化하고 社会的 関係수립의 기회가 결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交通機關(자동차)과 通信手段(전화)의 發達은 社会的 環境으로 연결시키는 자유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것은 人間의 社会階層에 均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機能主義建築時代에 物理的 行動을 위한 計劃은 「健康建築」이라는 前提下에 發展되었으나 社会的 関係는 그 重要性이 認知되지 못한 채 발전되었다. 住居, 產業, 商業地域等 用途에 依한 機能的 分離는 物理的 計劃의 長점은 될지모르나, 近隣接觸에 依하여 유도되는 社会關係수립에는 부적당하다. 具体的 例로 安全을 위한 車道와 步行路와의 完全分離, 個人所有自動車를 위한 교통망계획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通行者 모두에게 社会的 經驗의 機会를 감소시키고 交通의 원활을 위한 광대한 地域計劃은 建物을 고립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人間을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觀點에서 오늘날의 環境計劃은 人間의 社会的 環境計劃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社会的 次元을 도외시한 建築計劃은 不良한 環境과 各種 社会的 병폐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제 高層住居環境이 人間의 生活面 特히 人間의 精神健康과 児童의 發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最近 欧美先進國에서 報告된 研究結果를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 高層住居와 人間生活

欧美各国에서 都市再開発이란 老朽住宅을 高層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住居to 高層化에 따른 社会的問題나 居住者들의 滿足不滿足에 对한 態度와 精神的, 社会的 健康問題에 对한 資料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아파트(특히 共同住居)는 임시주거지라 생각하며 単独住宅이 안식처로써의 永久住宅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높다. 単独住宅은 그 質에 따라서 그 所有者の 社会的 身分의 差異가 確然히 区分되므로 居住者들은 他人으로부터, 의식적으로 自身의 社会的, 經濟的 地位를 현출하고자 하는 心理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高級住宅을 높이 評価하고 復雜하고 變化있는 住宅의 外觀과 独立性을 強力히 追求하게 된다. 이러한 人間의 心理的인 要素가 共同住宅 보급에 하나의 重要的 間接의인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高層住居生活에 야기되는 보다 심각한 問題는 住居의 高層化에 따른 이웃간에 社会的 接触의 결여인 것이다. 即 住居의 高層化는 자연히 建物과 建物間에 物理的距離(Physical Distance)를 拡大시키고 地上으로부터 수직동선이 延長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物理的距離關係는 住居地域内에서 社会心理環境造成에 가장 중요한 因子가 된다. (Hall 1966, 113 ~129) 사람들間의 “近接性”(Proximity)은 人間의 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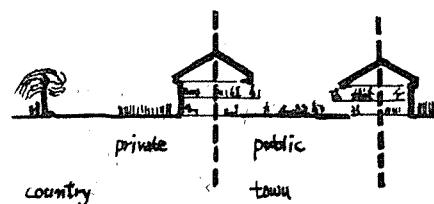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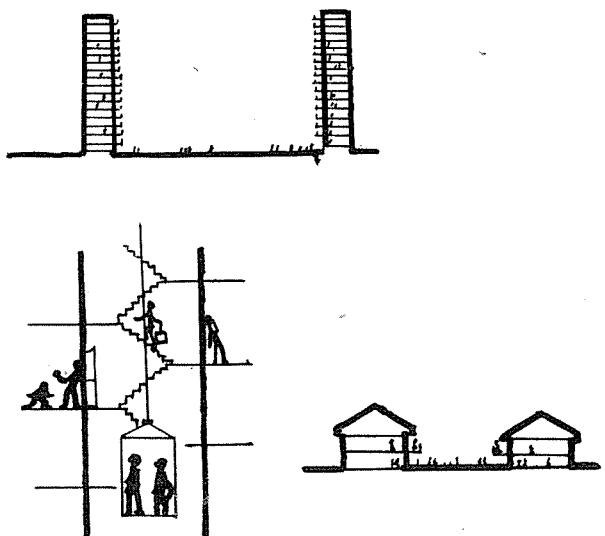


FIG. 1 AFTER J. Olivergren. 1970

会的 経験이나 行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까운 距離(Short Distance)는 사람들간에 빈번한 接触과 社會活動의 機会를 增大시키는 반면 遠距離(Large Distance)는 減少시키게 된다. 実際로 高層住居들間에는 低層住居에 比하여 이웃간의 對話나 社會的 親交의 機会는 월등히 적다. 더욱이 高層아파트의 외관은 同一한 形式의 窓門과 발코니를 갖게되며 많은 사람을 収容하게 되므로 单調롭고 個性이 결여된다. 地上에 面한 住戶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는 이웃사람들과 안면은 많으나 匿名하는 경향이 높후하며 이결과 社會的인 行事참여나 他人으로부터 초대나 社會的 接触의 機会는 오히려 감소된다. 심지어 계단이나 에레 베타, 또는 복도에서의 社會的接触의 機会도 예상외로 적다. 애니하면 이러한 公共부분ELE : 계단, 복도은 心理적으로 一種의 「침묵의 공간」 「침묵의 공간」이 되며 좀처럼 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高層아파트에서는 이웃간 자연스러운 접촉이나 社會的 親交의 機会가 만족할만한것이 못되므로 사람들은 年齢, 社會的身分, 職業, 健康狀態, 精神的인 態度等에 따라서 정도의 差異는 있어도 共通의으로 匿名, 疏外, 隔離感을 느끼게 된다. 한편 低層集合住宅에서는 建物과 建物間의 建物의인 거리가 짧으며, 창넘어 다니는 이웃사람들 쉽게 익힐 수 있고 바로 이웃집간에 親交도 相對的으로 쉽게 이루어지며 집안에서나 집밖에서 居住者들은 이웃간에 社會的經驗과 接触을 할수 있는 機会를 많이 갖게된다. 建物内에서도 社會的接触은 가까이 이웃한 계단이나 발코니에서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高層住居와 低層住居를 比較하여 볼 때 社會的 親交와 活動의 機会는 低層住居形式에서 보다 원활함을 알 수 있다.

한편 高層아파트住居에서 수직동선의 연장은 居住者들의 外部活動을 저해하며 성인들은 单独住居의 사람보다 무료한 생활을 보낸다. T.V시청時間은 单独住宅보다 길며 이것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 운동부족 현상을 초래하며 이러한 非活動은 交通事故의 위험은 없다하더라도 그들의 生命을 短縮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유폐되 다시피한 空間內에서 住生活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居住者들의 行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男女成人들은 男性の人들은 成的인 活動의 저해를 받게된다. 独立住宅이나 低層住居에서 정원을 가꾸거나 담장이나 창문에 페인트칠하는 일과는 달리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가, 접시를 닦는다든가, 우유를 먹이는 일등 家事を 돋도록 強要되게 한 高層住居內 児童의 精神的・身體的 發育問題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의 調査研究에 依하면 高層住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같은 年齢의 低層住居어린이들에 반하여 짓밖에서 노는 時間이 約 半밖에 되지 않으며 그

들은 좀처럼 밖에서 혼자 노는 例가 극히 드물다.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들에 對하여 필요이상의 주위를 기울이게된다. 가령 부엌 창넘어 아래 길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지 않으면 心理的 불안감을 갖게되며 과잉보호를 하게된다. 아동진료소에서 근무하는 한 정신건강의사는 5년간의 관찰결과 高層住居에 사는 많은 児童들의 運動不足증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발육기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이웃집이나 집주인에 신경이쓰여 室內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이 부모에 依하여 금지되었고 침실에 유폐되 다시피해서 양육되어온 증거라 할 수 있다. 發育期에 있는 児童의 運動不足과 社會的 親交의 단절은 精神的 發育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非人間化, 認識發達의 저해, 非社會的行動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들 어린이들은 社會化의 過程에서 不完全하며 너무나 어른들과 밀접히 생활하게되므로 결과적으로 긴장과 과민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高層住居形態의 单調롭고 同一한 外觀에 대한 心理的 反發心은 单獨住宅보다 월등하다. 이러한 单調로운 高層住居 Block의 非人間的尺度는 感情發育과 자아인식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居住者들은 그들 자신 난쟁이가 된듯한 不健全한 이미지를 느끼게된다. 청소년들은 가장 이같은 問題로 고민하게되며 환경에 대한 強한 反發意識을 느껴 급기야는 파괴주의(Vandalism)로 發展하게된다. 特히 最近欧美에서 새로 開發된 高層住居地域내에서 벽에 낙서를 한다던가 公共器物을 파괴하는 행위의 發生率이 증거하고있다.

高層住居環境의 单調로움은 직장인들의 感각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事務所建築이나 아파트의 外形이나 内部環境은 별로 다를바 없으며 이러한 環境속에서 单調로운 生活의 연속은 心理的으로 마치 감옥生活같은 느낌을 주게되며 地上에서 격리되어 높은곳에 있다는 高層에 대한 심리적 不安全感과 외로움을 느끼게된다. 이결과 高層住居者들은 都心地에 나간다면가 교외로 나가느 도피성벽이 높후하다. 以上 高層住居環境에서 야기되는 ① 격리감과 소외감의 문제 ② 아동발육의 저해 ③ 社會的活動과 근린親交 기회의 결여等 제반 社會的, 精神的, 物質的 문제는 숙고되어야하며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問題는 美學者, 建築家, 社會学者, 都市計劃家, 行政家 무엇보다도 居住者들에 依하여 각자 다른 角度에서 달리 해석되고있다. 再開發地域에 高層建築의 고귀한 모습이나 경쾌한 모습은 都市美構成에 좋은 手段이 될지모르나, 問제의 당사자는 바로 그속에 거주하고 있는 男女老少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 住居環境設計因子

上記한 社会心理的 環境造成을 위하여 住居環境設計에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基本因子(Olivergen 1970)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步行路의 配置： 가장 重要한 因子로서 步行路를 通하여 大部分의 人間의 活動이 行하여지므로 步行路는 可能한 住居地域内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利用할 수 있도록 配置할 것이며 通行者は 가장 짧고 가장 편리한 길을 즐겨 選択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 棟의 配置： 住居地域内 建物들은 그 地上의 機能이 变化있게 分化될 수 있도록 配置되고 建物自体 外觀에 变化가 있어야 한다.

各棟은 主步行路를 따라 密集하게 配置하되 곳곳에 적당한 開放空間을 두어 各種社會的行為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可能限 自然環境을 조망할 수 있는 配置이어야 한다.

(3) 外部環境造成： 步道와 廣場은 外部空間이라기 보다 建物로 둘러 쌓여진 内部空間이라는 기분이 들도록 特性있는 空間計劃이 필요하다. 특히 外部空間配置와 여기에 面한 建物外觀은 친밀감과 개방감을 줄수 있는 材料와 尺度로 構成되어야 한다. 步行者の 키와 間連에서 친밀감과 人間味가 도는 크기이어야 한다.

(4) 方向標識施設物(Orientation Facilities)： 이것은 居住者들의 精神的인 安息과 通行者の 位置를 쉽게 確認하는데 매우 重要한 역할을 한다. 可能한 친절과 방향 표지판의 施設이 要求된다.

(5) 安全施設： 주야간 步行者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施設物(난간, 계단, 가로등)을 充分히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므로서 心理的 安全感을 주어야 한다.

(6) 公共施設： 可能한 建物과 가까이 配置하므로서 自然스럽게 接近할 수 있고 이웃사람들과 接触할 수 있는 場所가 되도록, 뿐만아니라 居住者들로 하여금 選択의 自由를 고려하여 配置할 것.

(7) 独立性과 安溫性(Privacy and Peace) 특히 이러한 心理的 要素는 公的空間計劃上 重要하다. 独立性은 内外部空間에 모두 確保되어야 한다.

(8) 人間의 親近尺度(Human Proximity Scale)

細部의 尺度計劃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人体에 알맞게 構成되어야 하며 通行路의 幅, 길이의 尺度는 建物 크기와 調和시켜야 되며 하늘같이 높은 壁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9) 室의 配置： 展望을 고려한 各室의 配置는 精神的인 安全과 心理的 機能上 매우 중요하다. 특히 人間環境計劃에 매우 기본이 되는 要素이다.

(10) 建物外觀의 調和： 一住居團地내 建物의 外觀은 各己 個性을 지닌 变化있는 外樣과 視覺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11) 家族型과 社会階層： 各種家族型과 社会階層이 可能한 混合되도록 각棟의 융통성 있는 平面計劃과 配置計劃이 重要하다.

5. 끝나말

過去의 建築家들은 高層住居環境에서 야기되는 제반 社会的, 心理的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建築家는 伝統的으로 個人の 經驗과 直觀에 의존하여 왔던 환경 설계에 再検討를 必要로 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物理的 環境 設計家라기 보다는 社會開發, 人間開發, 人間性의 回復,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시켜 폭넓게 建築環境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建築學 教育에 多學問의in 接近方法과 統合의이고 体系의in 人間環境教育이 절실히 요청되며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評價研究와 環境 設計에 관련된 他分野 專門家들과의 적극적인 協同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1. Bitter, C. et 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Little Children in Modern Flats; CIB Commission W 45 Symposium, Stockholm, Oct. 1967.
2. Cappon, D., Mental health in the hi-rise; Ekistics 196, Mar. 1972.
3. Donning, G. L. A. and Calway, J. P. T., On Living in High Flats; Proc. Royal Society for Promotion of Health, 1963.
4. Gehl, J., A Social Dimension of Architecture; 1970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Psychology Conference at Kingston Polytechnic, (ed) by Basil Honikman
5.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1969. Doubleday Anchor Book.
6. NSPCC, Children in Flats : A Family Study. 1970.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1 Riding House St. London WIP 8AA.
7. Olivergen, J., A Better Socio-psychological Climate in Our Housing Estates;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Psychology Conference at Kingston Polytechnic, (ed) by Basil Honikman
8. Wekerle, G and Hall, E., High rise living: Can the same design serve young and old? ; Ekistics 196, Mar. 1972.